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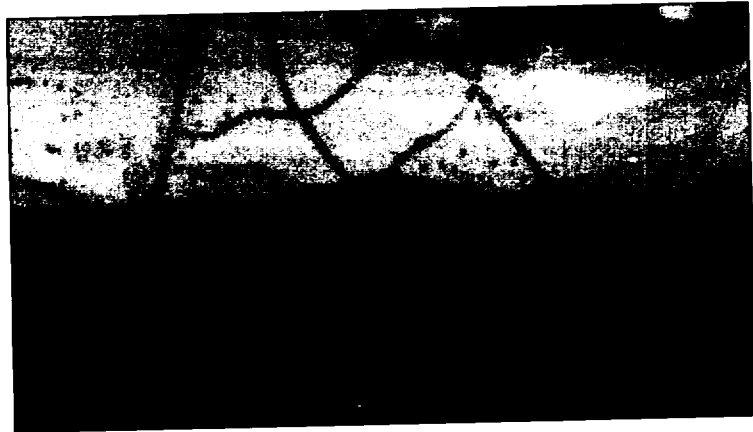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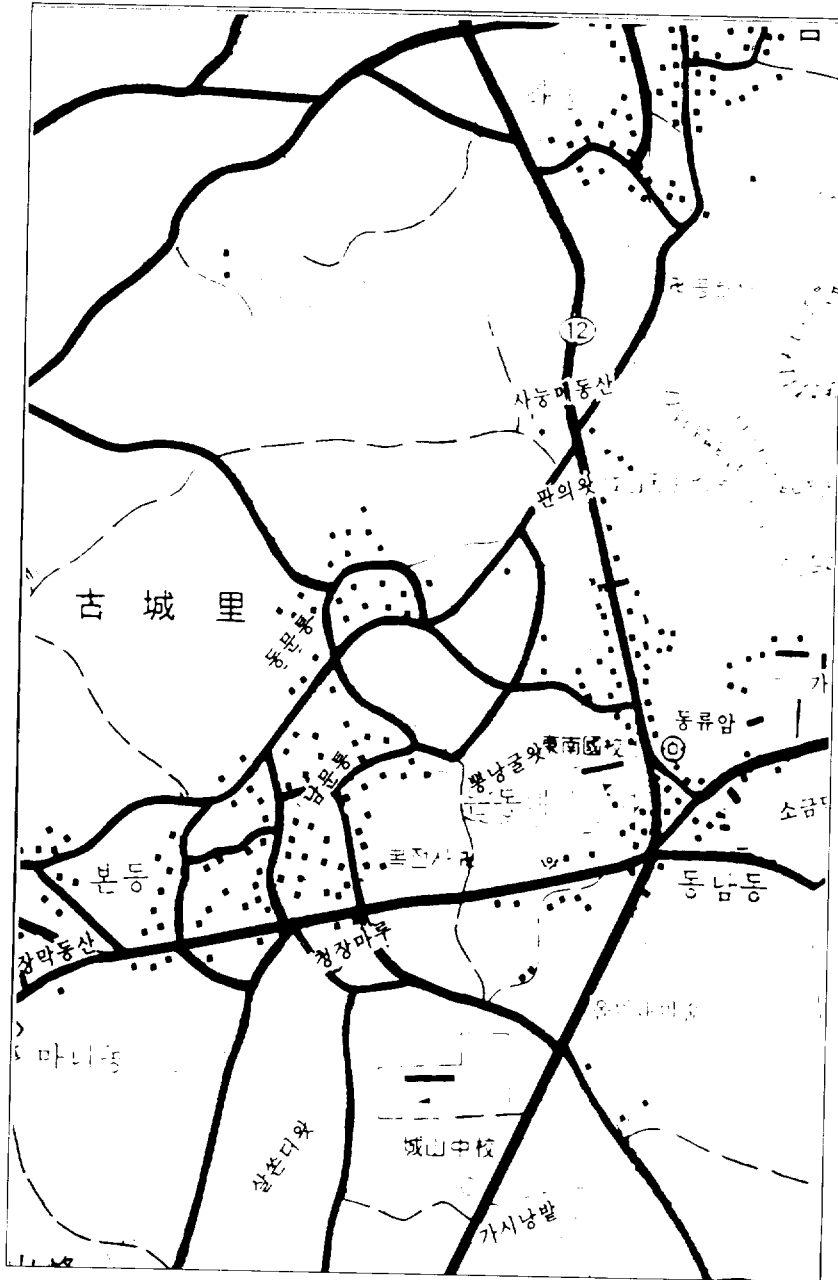
(西歸浦市 城山邑 古城里)

2007년 6월 21일 ~ 6월 23일 조사

▣ 사회배경 / 유물·유적 / 방언 / 설화 / 신앙 ▣



고성리 지도



사회배경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자연 환경
3. 인구현황
4. 일반현황
5. 마을의 형성
6. 터진목 사건

1. 지리적 환경

서귀포 성산읍 고성리는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 성산리를 포함한 8.558km²의 면적 안에는 신양리도 포함되는데 신양리는 아직 고성리와 법적인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터진목'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는 성산리, 동북쪽에는 오조리, 서북쪽은 수산리, 서남쪽에는 온평리가 위치하고 있다. 과거 고성2구였던 신양리는 섬지코지를 포함하고 있다. 마을 안에는 '대수산봉(큰 물뒀)', '소수산봉(작은 물뒀)'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수산평이라는 넓은 목장지가 있다. 지금도 일출봉의 서녘기슭 바닷가를 '수매 밭' 또는 '수마포'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마, 즉 말을 실어냈던 포구가 아닌 가 짐작케 하고 있다.

2. 자연환경

과거 이 지대는 넓은 목장지대였으나 지금은 과수원, 잡목지, 경작지대로 바뀌었다. 이 마을은 일본과 가까운 해안가에 위치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왜구의 침입으로 진사, 즉 지금의 성읍리에 현을 옮기었다고 기록에 전한다. 그러나 이 마을은 우도와 성산 사이의 거센 물살과 식산봉, 일출봉 등의 자연적 요새 또한 얇고 긴 해안선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바닷물을 막아 농지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이 지역은 물의 차단 때문에 늪지대로 바뀌는데 아직도 마을 부근에는 늪지대가 많이 널려 있다.

토질은 화산회토이며 과거에는 조,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심어 왔으나 최근에는 토질의 조건에 맞는 유채, 당근, 무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은 동남꽃 등의 샘물과 집 가까이 판 우물을 식수나 용수로 사용했는데, 이 물에 염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1967년부터 수도공사로 지하수를 뽑아 쓰게 되어 용수난이 해결되었다.

1971년에 설립된 성산포 기상 관측소에 의하면, 이 지역은 동쪽 끝에 있어 한라산의 영향을 덜 받고 해안 지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겨울철 기온은 낮고, 여름철에는 높는데 제주시 등지와 섬씨 2도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풍속 또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는 섬의 닭 지역에 비해 2~3m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고성리는 목축과 사냥이 발달해서 언덕 동산의 이름이 특히 발달해 있었다. 또한 바다를 접하고 빌레가 발달해 있어 포구와 빌레의 이름도 많았다.

큰 물뿔: 대수산봉 마을의 서쪽에 있으며 옛날에는 꼭대기에 연대가 있었다. 풍수 지리학상 와우형으로 과거의 공동묘지가 분화구에 있으며 지금도 서녘기슭이 공동묘지이다. 민간에서 '물미' 또는 '물메'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水山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옛 지도와 옛글에는 首山으로 표기되고 있다. 首山은 '물미'의 한자 표기인 水山의 水를 首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首山은 '마리미' 또는 이의 준말인 '말미'의 훈독자 표기로 볼 수도 있으나, 민간에서 그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水山에 峯 또는 峰을 덧붙여 표기한 것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한자 표기이다. 이 산에 샘물이 있었는데 송나라 胡宗旦이 와서 水脈을 끊어버린 이후에 말라 버렸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설과 관련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작은 물뿔: 소수산봉. 큰 물뿔 남쪽에 있다. 풍수 지리학상 지형이 금계포란형으로 효자의 무덤이 많다.

뽕래기둥: 바위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고이는데, 보릿짚 같은 대롱으로 빨아 먹을 수밖에 없다.

간돈지: 간돈지, 가시리, 가경리, 관순점 등으로 불리는 곳이다.

3. 인구현황

2006년 현재 고성리의 총 가구 수는 1307호에 총 인구수는 3352명이다. 호당 평균 인구는 2.56명이다. 총 인구 중 남자는 1716명, 여자는 1636명으로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는 104.9명으로 비교적 남자가 많은 편이다.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곳 고성리도 핵가족화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86년 호당 평균 인구는 4.2명, 1996년에는 3.1명, 2006년에는 2.5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성

비의 변화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알 수 있는데, 1986년은 93.4로 여자가 많았으나 1996년 99.4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인다. 이후 2006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4. 일반현황

면적	계(ha)	전	과수원	임야	기타
	560.2	116	135	186.2	123

가구	계(가구)	농가	어가	기타
	1,011	184	154	673

인구	계(명)	남	여	세대수
	3,364	1,713	1,651	1,306

마을재산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목장	공동묘지	기타
	1	1	2	-	1	-

주요시설	학교	은행	의료시설	공공기관	기타
	2	1	5	3	-

5. 마을의 형성

고성리 인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00년대의 고려 때로 봐야 할 것이다. 원나라가 제주도를 목마장으로 삼은 것은 충렬왕 3년(1277년)부터 이후 100여 년간 지속되는데 고성리를 포함한 수산평 등지가 목장으로 쓰였다.

조선조에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1416년 태종 16년 5월 6일에는 제주 도안무사 오식과 전 판관 장함등의 조정에 제주

삼읍정립에 대한 사의를 올려 제주, 정희, 대정 삼읍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당시 고성읍은 첫 번째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었다. 그러나 고성리는 오래 현청소재지로 존속하지 못하는데, 초대 정의현감으로 부임한 이이가 고성이 현청으로써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정문을 올렸고 그에 따라 전라도 도관찰사가 사의를 올려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공익(남제주 문화원 원장) 씨의 설명에 의하면 고성이 현청소재지로 있었던 기간은 약 7년 정도라고 한다.

6. 터진목 사건

4·3 희생자 회장 정종성 씨(67세, 남)에 따르면 터진목 사건은 1948년 10월 말~1949년 5월 말까지 물때에 따라 길이 열리고 닫히는 '터진목'에서 191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는 증언이 아니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수가 문헌과 증언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은 좀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종성 씨는 부친을 8세 되던 해(1948년 12월 경) 터진목 사건에서 여의었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증언들을 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사건 당시 많이 어렸고,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 아쉬움이 많은 제보 내용이었고, 성산읍지에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한편 성산읍 사무소는 위 사건이 4·3의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아니며 검토되는 중이라 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조사자: 천창익(02), 고흥욱(03), 허승용(05), 문경나(06), 강윤미(07),
원인혁(07), 황이삭(07), 한성자(07)